

홍콩과 싱가포르의 動向과 展望

60년, 7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홍콩, 싱가폴은 최근의 성장 둔화로 제조업의 첨단산업화, 산업의 서비스화 등의 산업고도화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폴은 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조직적인 산업구조 전환으로, 홍콩은 자유경제하에 민간기업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특색이 짙어 금융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는 중공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어 중공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싱가폴에는 일본계 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 조달 거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70년대까지만해도 고도성장을 구가했던「華人都市國家」싱가폴과 홍콩의 경우, 최근의 국제환경변화는 반드시 순조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시아 NICS를 형성하고 있는 이 두나라는 이 국면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싱가폴, 홍콩 모두 제조업의 첨단산업화, 산업의 서비스화로 불리는 산업고도화를 향한 움직임이 전에 없이 강화되고 있다.

60년대, 70년대를 통하여 함께 고도성장을 계속해 온「華人大都市國家」인 이 두나라는 1985년 들어 싱가폴이 1.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홍콩도 개인소비의 둔화와 직수출의 감소로 0.8%성장에 머물렀다. 싱가폴은 독립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홍콩의 경우도 제1차 오일·쇼크때의 0.2%에 이은 낮은 성장이었다. 1986년의 전망도 홍콩은 5.6%로 일단 상향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싱가폴은 여전히 1%정도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한국(9~10%), 대만(8.8%)과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싱가폴 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조직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꾀해져 왔고 홍콩의 경우는 규제도 없는 대신 인센티브도 없는 극단적인 자유경제하에 민간기업의 판단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정책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 결과, 1인당 GDP는 싱가폴이 7,200弗(1984년), 홍콩이 6,277弗(1985년)로 아시아 NICS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발전도상국의 추격,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보호주의 대두 등 환경악화는 전술한 바와 같은 성장저하로 나타나 종전 이상의 대담한 산업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싱가폴의 경우는 정부도 정책방향 전환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1. 하이테크化가 進展되는 製造業

제조업의 고부가치화와 제 3차산업의 확대는 이제까지도 싱가포르, 홍콩의 일관된 흐름이었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모두 외국자본의 도입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양국의 발전과정이나 산업체질은 같지않고 대조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싱가포르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데 반하여 홍콩은 경공업이 중심이다. 따라서 그 양상도 자연히 달라지게 마련이다.

먼저 싱가포르의 경우, 1961년에는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창출을 노린 수입대체 공업화정책이 내걸어져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개발국의 설치, 유치산업의 파이오니어산업 지정 등 단계적으로 구체적 시책이 취해졌다. 이어 1968년에는 외자에 의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으로 전환하여, 공업화는 정부주도하의 적극적인 우대시책에 의한 외자도입을 축으로 행해졌다. 1979년에는 정부는 고부가가치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노린 대폭적인 임금인상 권고를 행하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집약적 부문은 정리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주요 제조업을 1985년의 수출고순으로 보면 석유제품, 통신기기, 고무, 의류, 집적회로, 사무용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산업을 수출신장률로 구분해보면 별표처럼 성장이 현저한 부문과 쇠퇴가 현저한 부문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석유정제는 현재도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근년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들이 독자적인 경제능력을 충실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산유국의 경쟁격화에 따른 가격저하로 그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70년대에 미약적인 발전을 이룬 조선업도 해운불황, 한국 등의 추격으로 극단적인 축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섬유·의류는 증가를 보이고 있긴 하나 수출쿼타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들 산업과 자리를 바꾸어 신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무용기기, 집적회로 등의 분야이며 특히 일렉트로닉스산업은 고용면에서 싱가포르 최대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외국투자도 70년대 후반이래 부가가치가 큰 고도기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전기공업에 대한 투자 웨어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정부도 기술향상, 수출산업 및 관련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자본지원계획, 제품개발지원계획, 파이오니어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연구개발우대세제, 공업훈련계획, 기계화를 위한 이자지원 등 각종 투자조성 및 공업개발조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더우기 2년째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취해져 온 고임금정책결과 싱가포르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데 대한 반성도 표면화되고 있어 정부는 임금인상 억제에 나서고 있으며 1986년 4월부터 중앙적립금에 대한 고용부담 인하, 기술개발기금 각출금의 부담률 인하 등 기업부담 경감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홍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조업은 거의 경공업이고 중화학공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경공업도 최종소비재의 조립공업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의 主要輸出商品

(單位: 100萬S달러)

區 分	1981	1985	85 81
增加品目			(倍)
事務用機器	381	3,009	7.92
集積回路	584	1,538	2.64
食用油脂	582	1,128	1.94
커피·紅茶	243	385	1.58
光学機械	482	660	1.37
家庭用品	328	423	1.29
香料	249	305	1.23
衣料	990	1,177	1.19
織物	476	562	1.18
通信機器	2,642	2,780	1.05
減少品目			
船舶·오일리그	1,138	426	.38
고무	2,454	1,491	.61
肥料	196	130	.66
自動車	464	325	.70
木材	402	302	.75
木材製品	538	483	.90
發電機	356	323	.91
工作機械	918	861	.93
石油	13,953	13,418	.96

資料: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데 이는 토지, 용수, 천연자원이 부족한 자연조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무역관리나 외환관리도 없고 관세도 없는 자유무역항이라는 점에서 기계·설비·반제품·부품 등을 자유롭게 값싸게 수입할 수 있어 기업이 조립가공 위주의 사업으로 치달는 결과가 되고 있다

주요 제조업을 직수출고의 순으로 살펴보면 의류, 시계, 완구, 직물, 가정용 전기, 비전기 제품, 전산기용 부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류제품은 수출의 35%, 제조업 고용의 31%를 차지, 현재도 홍콩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낮은 코스트의 한국, 대만, 중공 등의 추격과 함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수량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 패션, 봉제기술 등 비가격 경쟁력의 향상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산업대신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일렉트로닉스 산업인데 이 분야는 특히 외자의 진출이 많은 분야로 1985년말의 외자의 제조업 투자에 접하는 투자잔고의 36.1%를 차지, 제2위인 섬유·의류의 10.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형적인 조립가공이긴 하나 홍콩정체도 80년대 제조업의 기수로 기대를 걸고 있다.

홍콩의 主要輸出商品 (單位: 100萬HK 달러)

區 分	1981	1985	85 81
增加品目			(倍)
寶石·金銀製品	1,208	2,879	2.38
프라스틱製品	1,156	2,594	2.24
電算機用部品	2,125	4,427	2.08
衣類·付属品	28,288	44,912	1.59
家庭用電氣·非電氣製品	2,996	4,551	1.52
織物	4,115	6,195	1.51
金屬物	2,027	2,935	1.44
玩具	6,685	9,235	1.38
時計	7,104	9,236	1.30
減少品目			
라디오	2,815	2,577	.92
造花	894	853	.95
旅行用品	1,629	1,601	.98

資料: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어쨌든 다른 발전도상국의 추격문제도 있어 홍콩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립가공을 주로 하는 산업체질에는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공의 영향이 나날이 강화되는 데 따라 노동집약적 부문의 대중공 하청 등으로 경쟁력 강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배후에 풍부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중공이 도사리고 있음은 다른 일면으로는 홍콩의 산업구조 전환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외자의 진출을 통한 고도기술의 도입도 기대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빨리 사업전환을 해온 홍콩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 높아지는 金融業에의 期待

싱가폴과 홍콩은 모두 국제금융센터로서 세계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업은 두나라 경제의 큰 기둥이 되고 있다. 이를 한걸음 나아가 서비스산업화의 일환으로 충실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역시 공통된 목표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보험·증권거래도 포함하는 광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슈퍼마켓」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의 촉진을 위한 우대조치로 1986년 5월 펀드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의 기한철폐, 론 신디케이션 활동에 대한 면세기간의 연장시책이 내걸어지고 있다. 또한 홍콩에서는 해외의 금융과 국내금융과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의 안정은 곧장 국제금융의 발전에 직결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금융의 안정적 발전을 지향하는 법 정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1986년들어 현행 「은행법」, 「예금취입회사법」대신 「은행법 1986」이 제정되었다.

서비스업의 중심인 국제금융 외에도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싱가포르이나 홍콩이나 영어를 공용어로 영국법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 회계사 등이 충실한데서 컨설턴트 업무를 비롯한 서비스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 크다. 더우기 홍콩의 경우는 배후에 중공을 거느리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 금년들어 재수출의 비중이 증가(1975년의 23.4%에서 1985년 44.8%)하고 있어 국제유통센터로서의 기능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싱가포르, 홍콩 모두 각각 산업의 고도화,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그 움직임이 급템포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한 생산기지의 태두리를 벗어나 국제비즈니스센터의 역할과 함께 서비스 수출국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홍콩은 싱가포르와 같은 정책적 그랜드 디자인도 없고 정청의 지도력도 앞으로도 별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나 민간의 활력에 맡겨지는 형태가 될 것이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화가 진행되리라는 것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싱가포르 經濟의 소프트化

1984年 후반,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아시아 여러나라의 1차산품 불황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싱가포르의 경기 후퇴는 그 경제구조의 약점을 찌르는 형태로 진행되어 1985년도에는 미국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인을 포함한 경제위원회(위원장: 리·웬론 상공장관서리)를 발족시켜 경제의 철저한 재검토와 그 대책수립이 시작됐다. 그 결과로써 1986년 2월 「싱가포르 경제: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와 건의가 발표되어 1986년 3월의 예산발표이래 계속해서 근본적인 제도수정정책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수정의 내용은 80년대 전반의 급격한 임금 상승에 의한 싱가포르 상품의 경쟁력 저하를 반성하여 임금억제를 포함하는 코스트 절감, 세계개혁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의 강화와 서비스업의 재조명, 정부의 파잉개입으로부터 민간활력 도입으로의 전환 등이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장래 모습을 단순한 생산거점이 아닌

비즈니스 종합센터 즉 정보·기술·서비스의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서비스-운수·통신·금융·비즈니스서비스-는 현재 GDP 구성비율의 약 40%를 차지,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의 성장을 지탱해 온 분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조업에 주어져 온 파이오니어 스테이타스(최고 5년간의 법인세 면제)를 서비스 산업에도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펀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감세조치, 헤드쿼터 부문을 싱가포르에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등의 정책을 실행에 옮겨 서비스 산업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통신망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더우기 하이테크 산업 발전은 아시아 중에서도 뛰어나 1983년 중기 시점에서 컴퓨터 기기 및 부품제조기업은 32개사, 소프트웨어 판매와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210개사에 달하고 있고 또한 컴퓨터요원훈련기관은 34개기관으로서 일본, 구미기업과 싱가포르 정부 공동의 것이 많아 정부계의 훈련소에서는 600명 이상의 훈련생이 배출되고 있다. 1990년까지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지로 이룩하겠다는 싱가포르로서는 현지기업 뿐만아니라 R&D 부문을 싱가포르에 두고 제품개발을 하는 외자가 필요하며 이때문에 연구·개발에 관한 비용에도 우대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업에 관해서는 70년대에 기반이 확립되어 아시아의 四天王으로 불리는 유력 현지은행을 지니고 있으며 홍콩과 어깨를 겨루는 一大金融都市이나 「金融의 슈퍼마켓」을 목표로 기반의 정비가 서둘러지고 있다. 오프쇼어시장은, 자금원으로 아시아, 아랍의 중앙은행, 다국적기업(특히 석유 메이저), 주변 여러나라의 화교자금이 유입되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개발자금으로 쓰이고 있어 지리적 우위성과 함께 아시아 달러 시장은 5년간에 갑절이 늘어난 1,550억弗 규모로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도 1986년 4월부터 민영화가 결정된 SIA(싱가포르 항공), UIC 등의 정부보유주 매매소식이 들리고 있다. 또한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일본의 주식이 불규칙적인 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아시아의 펀드 매니저들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시장도 외국으로부터의 매입을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SIMEX)에서는 지난 해 9월 3일부터 日經平均株價 先物거래가 개시되었으나 개시당초에 성황을 보였던데 반해 현재는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국내거주자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生保 등 대기관 투자자들이 참가할 수 없어 시장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아니라 일본 대장성의 규제완화나 올봄부터 시작되는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의 선물거래개시 등 현안사항도 적지않다.

카운터 트레이드도 장애가 유망시되고 있는 것의 하나이다. 1986년초 런던을 방문한 무역발전국의 다스 장관은 「빈이 동유럽의 카운터 트레이드기지인 것처럼 싱가포르도 아시아의 카운터 트레이드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세계적인 통신망, 발달된 은행업무, 무역항으로서 정비된 기반시설, 무역에 정통한 인재가 풍부하며 또한 필리핀이 동유럽, 중공과의 카운터 트레이드 업무를 위한 필리핀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카운터 트레이드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등의 여건으로 보아 서비스기지로서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20개의 국제카운터 트레이드 기업이 있으며 이미 현지기업이 인도네시아에 1,000만 弗 상당의 설탕, 합판 등과 교환으로 비료를 수출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3개사는 파이오니어 스테이터스를 받고 있다.

지난 해의 경제 재검토시 경제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서비스 위원회는 30개 항목에 걸친 「핵심계획」을 제안했다. 그 대상은 해운, 창고 서비스 등의 전통적 서비스분야로부터 싱가포르를 기지로 하는 교육, 직업훈련, 의료서비스, 그리고 호텔관리, 농업, 첨단기술 수출 등의 새 분야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서비스의 수출대상으로는 지리적으로도 종전부터 배후지역의 아시아와 금년들어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중공이 중심이 될 것이다.

아시아는 현재 회복기미를 보이지않는 기나긴 불황에 빠져 있으나 역사적으로도 아시아의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해 온 싱가포르서는 아시아의 불황은 절실한 문제이다. 원래 영국의 말레이시아 반도 지배의 거점 및 고무, 주석 등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와 영국을 잇는 중계무역항으로 발전이 시작된 싱가폴은 독립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는 중계무역에 전념의 존하고 있었다. 60년대 후반부터 이웃 여러나라들이 경제자립화를 추구하여 직접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현재도 싱가폴의 전수출액중 35%는 중계무역이다. 또한 중동의 산유지대와 소비국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도 있고 해서 석유정제, 선박수리업 등이 발달했으나 오일 쇼크이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의 미국계 석유 메이저에 의한 석유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싱가폴은 그 거점으로서 대규모 석유정제기지가 되어왔다. 그리고 석유로 인한 호경기를 맞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역대 쇼핑센터인 싱가폴이었다. 또한 80년대 초기의 노임 앙등으로 경공업 중심이었던 싱가폴의 현지기업은 이웃나라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이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그 대상지는 말레이시아 특히 조홀주가 많다.

근년, 투자가 저조한 상태를 보여왔으나 円高에 몰린 일본계 기업의 진출대상지로 다시 각광을 받아 싱가폴 정부의 예측으로는 1985년의 11억 싱가폴 달러(이하 S달러, 1US달러=2.2 S달러)에서 1986년에는 14억 S달러로 투자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의 동향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R&D 부문의 설치라든가 기술 집약적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싱가포르로 이전하므로써 현지 생산제품이 고도화되는 움직임이다. 동시에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부품조달 거점으로 싱가폴이 이용되는 등 종전과는 다른 투자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의 역내 분업이 진전되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역내에서의 헤드 쿼터 부문의 싱가포르 진출, 아시아의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장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中共影響 強化되는 홍콩

근년, 홍콩에서의 중공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홍콩의 반환문제는 1985년 5월 영·중공합의서가 비준됨에 따라 3년에 걸친 교섭에 종지부가 찍어지고 홍콩은 1997년에 중공의 특별행정구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교섭기간중의 심리적 동요와는 달리 때마침 1979년부터 시작된 중공의 개방정책에 따라 무역·투자를 포함한 홍콩과 중공의 상호관계는 그 동안 진밀화를 가속화하여 왔다.

향토의식, 인척관계, 교우관계 등까지 겹쳐 「香港人」의 중국관은 복잡하지만 좋은 싫든 긴

밀화가 진전됨에 따라 홍콩이 중공의 동향에 좌우되는 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홍콩의 수출은 현지 제품의 직수출과 제3국 제품의 재수출로 구분되는데 1985년의 대중공 직수출은 개방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1980년에 비해 9.5배(대 세계 전체는 1.9배), 재수출은 9.9배(동 3.5배)로 급증하고 있다. 이 결과 직수출과 재수출을 합친 전수출에 접하는 중공의 비중도 1980년의 6.3%에서 1985년에는 26.0%로 늘어나 최대 무역대상국인 미국과의 격차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수출중에서 재수출의 신장이 두드러지나 대중공 재수출을 원산지별로 보면 1985년의 경우

홍콩의 對中共 貿易

(單位：100萬HK달러)

	'80		'85			'86(1~6)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80-100	金額	'85(1~6) =100
直輸出	68,171	100.0	129,882	100.0	191	65,374	108
對中國	1,605	2.4	15,189	11.7	946	7,349	97
再輸出	30,072	100.0	105,270	100.0	350	53,033	101
對中國	4,625	15.4	46,023	43.7	994	17,628	72
全輸出	98,242	100.0	235,152	100.0	239	118,406	105
對中國	6,230	6.3	61,212	26.0	983	24,977	
輸入	111,651	100.0	231,420	100.0	207	123,334	109
對中國	21,948	19.7	58,963	25.5	269	34,891	136

資料：홍콩統計局

일본이 31.6%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대만(16.7%), 미국(9.7%), 한국(6.0%)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홍콩을 무대로 대만, 한국 등과의 경제교류도 급속하게 활발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 자체를 원산지로 하는 것도 6.7%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홍콩이 중공의 유통센터 기능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중공으로부터의 수입을 살펴보면 1980~1985년間に 2.7배(대 세계전체 2.1배) 규모로 늘어나고 있어 수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입 전체 신장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수입가운데 58.7%는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데 대상지로서는 미국이 32.5%로 가장 크고 다음이 중공(8.9%), 한국(5.6%), 일본

(8.3%), 인도네시아(3.7%) 등으로 되어 있다.

중공과의 무역을 상품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설비, 경공업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입은 식료, 경공업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공의 경제정책이 외화감소 등 때문에 1985년 후반부터 긴축기조가 됨에 따라 1986년 상반기의 대 중공무역은 지금까지의 급증 추세에서 반전, 직수출은 전년동기비 7%감(대 세계전체 8%증), 재수출의 경우는 28%감(동 1%증)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수입만은 36%증(동 9%증)으로 늘어나고 있다.

1979년 중공에서 습弁法이 공포된 이래 각국의 대 중공투자는 그런대로 진전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중심은 역시 재외 화교이었고 그중에서도 홍콩의 비중이 컸다. 특히 중공의 개방정

책에 편승한 홍콩의 대 중공투자는 지난 4~5년동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는데 홍콩의 經濟報導誌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85년까지의 대 중공투자중 금액기준으로 80%가 홍콩으로부터의 투자라는 것이다. 투자대상지역도 중공 남부 뿐만아니라 거의 중공 전역에 걸쳐 있으며 업종별로 보아도 기계, 전자, 섬유 등 제조업을 비롯, 양식 등의 농어업, 호텔, 레저랜드 건설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동기와는 관계가 없는 출신 향토에 대한 향수, 혹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공에 대한 “보험” 등 측면도 있어 대학이나 도서관을 건설하여 기부하는 등 예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콩과 인접해 있는 深圳 경제특구의 개발은 홍콩에 의존하는 면이 커서 1986년 4월에 특구의 북쪽에 제 2 국경선을 완성하여 홍콩·深圳간의 왕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일체화가 더욱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도 홍콩의 제조업이 중공에 하청가공을 의뢰하는 일은 많았으나 싱가포르 수준은 아니더라도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홍콩으로서는 홍콩에 비해 일반노동자 40%, 기술자 50% 수준이라는 중공의 임금수준은 매력적인 인센티브일 것이다.

홍콩의 중공계 기관의 활동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행해져 왔으나 영·중공 합의서 비준을 전후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홍콩의 중공계 신문인 「文匯報」에 따르면 최근 중공 호북성에서 개최된 「香港經濟研究會」에서 중공의 대 홍콩투자가 1985년말 현재로 총액 50억 弗로써 미국을 앞질러 톱이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자료는 홍콩의 경우 외국투자에 관한 통계가 제조업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홍콩측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홍콩에 있는 「四大集團」으로 불리우는 중공계 대기관으로는 中國銀行(중공계 은행 13행의 감독은행, 홍콩 예금의 4 할을 점유), 華潤集團公司(홍콩의 중공무역 총대리점, 산하에 약 50개사를 거느리고 있음), 招商局(중공교통부

의 홍콩지부, 해운·창고업을 중심으로 사업전개, 산하에 기간기업 10수개사), 光大集團有限公司(중공최초의 민간종합상사로서 1983년에 개업)가 있으며 이밖에도 중공의 지방청 등 홍콩 출장소 등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관의 홍콩에서의 활동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부동산·건설, 제조업, 무역, 유통, 관광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 움직임도 해마다 활발도를 더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사례 중에서도 규모면에서 큰 것은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의 제 2 해저터널 건설 회사에 대한 참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총공사비 34억 홍콩달러(이하 HK달러, 1 US달러 = 7.8HK달러)를 투입, 1989년에 완성 예정이라는 근래에 없는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同公사가 자본 참가하고 용자를 위한 국제 신디케이트에는 中國銀行이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 터널입구 부근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도 同公사는 40%의 자본참가를 하고있다.

또한 華潤 그룹이 중공전자공업부와 공동으로 제 1 기공사 15억 HK달러를 투입 컬러 TV 용 브라운관 공장을 건설한다. 혹은 光大集團有限公司가 10억 HK달러로 알미늄 케이בל 공장을 건설한다는 등의 발표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서 자금난에 빠진 현지은행에 대하여 중공의 관계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영·중공 합의서는 「홍콩의 안전과 번영은 중영 쌍방에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 일련의 중공계 기관의 움직임은 단순히 경제적 동기뿐만이 아니고 중공으로서도 홍콩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다.

어쨌든 대 중공무역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편으로는 진폭이 심한 중공의 정책에 좌우되는 양상이 짙어질 것이고 홍콩내의 중공투자가 늘면 늘수록 홍콩은 중공 영향하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